

## Sermon: The Age of Pestilences

### ■ 오늘의 본문말씀 : 마태복음 24:7 & 33

Today's main verses are Matthew 24:7 & 33. 오늘의 주 성경구절은 마태복음 24:7 & 33절입니다.

『Matthew 24:7』<sup>7</sup> For nation shall rise against nation, and kingdom against kingdom: and there shall be famines, and pestilences, and earthquakes, in divers places.

『마태복음 24:7』<sup>7</sup>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Matthew 24:33』<sup>33</sup> So likewise ye, when ye shall see all these things, know that it is near, even at the doors.

『마태복음 24:33』<sup>33</sup>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볼 때에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 1 Introduction 서론

Now, as all of you know very well, so many people over the world are worried about new coronaviral outbreak. 지금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바이러스 발발에 대해 염려하고 있습니다.

This novel coronavirus was first identified in Wuhan, capital of Hubei province in China in December 2019.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중국 후베이성의 수도인 우한에서 2019년 12월에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It causes the novel clinical syndrome known as COVID-19 (COronaVirus Disease 2019). 그것은 코비드-19(코로나바이러스 질병 2019)로 알려진 새로운 임상적 증후군을 일으킵니다.

As of 20 February 2020, 75,744 cases have been diagnosed, including in every province-level division of China. 2020년 2월 20일 현재 중국의 모든 성에서 75,744명이 발병 확진을 받았습니다.

Worldwide, expert opinion varies on the possible number of cases. 전 세계적으로는 발병 숫자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이 갈립니다.

The death toll has surpassed the 2003 SAR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outbreak. 사망자 수는 2003년 발발했던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를 넘었습니다.

Since new millenium started in 2000, human beings have been suffering from SARS, swine influenza 新種 플루 (pandemic influenza A/H1N1 2009), 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VID-19, and so on. 2000년에 새로운 100년이 시작된 이래, 인간은 사스, 신종 플루,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코비드-19 등으로부터 고통을 당해오고 있습니다.

As such, it is true that we live in the age of pestilences. 이와 같이, 우리는 역병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Now I, therefore, want to speak a message entitled “the Age of Pestilences” in order to discern the signs of this age we live in and also to live a life acceptable unto God. 따라서 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징후를 분별하고 하나님께 용납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역병의 시대”라는 제목의 설교를 드리고자 합니다.

Let's pray: Heavenly Father, thank you so much for allowing us much Grace to worship you in spirit and in truth here at IIBC. Now I pray earnestly that your Word of Truth would illuminate all members of IIBC who live in the Age of Pestilences. All honor and glory be unto you. In Jesus' name I pray. Amen.

## 2 Why did God make viruses? 하나님께서는 왜 바이러스를 만드셨는가?

Now I would like to deal with 5 questions we have to think about while we live in the age of pestilences. 저는 우리가 역병의 시대를 살면서 생각해보아야 할 다섯 가지 질문을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The first question we have to consider is “Why did God make viruses?” 고려해 봐야 할 첫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왜 바이러스를 만들었는가?”입니다.

As I mentioned just before, SARS, swine Flu, MERS, and COVID-19 are viral illnesses. 방금 전에 언급한 것 처럼,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비드-19는 바이러스성 질병들입니다.

And also AIDS which has been abruptly increasing in incidence and prevalence here in Korea, is due to virus named HIV. 그리고 갑자기 발병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한국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는 에이즈도 에이치 아이 브이라는 이름의 바이러스에 의한 것입니다.

Here arises the fundamental question. 여기에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Unless God made viruses, human beings would not have suffered from any kind of viral illnesses including pestilences. 만일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역병들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If so, why did God make viruses?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바이러스를 만드셨을까요?

We do believe that God created various forms of life according to their kinds with the ability to reproduce and fill the earth (Genesis 1:21, 22, 24-28).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형태의 생명을 그들의 종류대로 만드셨는데, 그들에게는 번식하여 지구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This view includes the concepts that God had purpose in what He created and that it was originally very good as Genesis 1:31 says, 이 견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는 목적이 있고 그것은 원래 창세기 1:31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아주 선한 것이었다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Genesis 1:31』<sup>31</sup> *And God saw every thing that he had made, and, behold, it was very good. And the evening and the morning were the sixth day.*

『창세기 1:31』<sup>31</sup>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더라.

If God created everything good and with a purpose,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셨고 만드신 목적이 있었다면,

why are there viruses in the world? 도대체 이 바이러스들은 왜 있는 것일까요?

On the contrary of the common sense that viruses are just hazardous and unnecessary agents, 바이러스는 단지 위험하고 불필요한 병원체라는 상식과 반대로,

it has been suggested that viruses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maintaining life on earth. 바이러스는 지구 상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은 해왔다는 주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In fact, they may play a role in solving an intriguing puzzle that faces creationists. 사실, 바이러스는 창조주의자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수수께끼를 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The biblical record tells of a global Flood when all created kinds of unclean land animals were reduced to a population of two, as Genesis 7:9 says, 성경은 대홍수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그 때 모든 깨끗하지 않은 땅의 모든 종류의 동물들은 숫자가 둘로 줄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7: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Genesis 7:9』<sup>9</sup> *There went in two and two unto Noah into the ark, the male and the female, as God had commanded Noah.*

『창세기 7:9』<sup>9</sup>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이 두 마리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After the Flood, these animals reproduced and filled the earth again as God commanded in Genesis 8:17,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 창세기 8:17절에서 명령하신 대로 이 동물들은 번식하여 지구를 다시 채웠습니다.

『Genesis 8:17』<sup>17</sup> *Bring forth with thee every living thing that is with thee, of all flesh, both of fowl, and of cattle, and of every creeping thing that creepeth upon the earth; that they may breed abundantly in the earth, and be fruitful, and multiply upon the earth.*

『창세기 8:17』<sup>17</sup> 모든 육체 중에서 너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날짐승과 가축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너와 함께 데리고 나아가 그것들이 땅에서 풍성히 번식하며 땅 위에서 다산하고 번성하게 하라, 하시니

Today, many of these kinds (種) are represented by whole families (科). 오늘날, 이러한 종의 많은 것은 과로 대표됩니다.

For example, the dog family (Canidae) is believed to represent a created kind. 예를 들어, 개과(캐니디)는 창조된 한 종을 나타낸다고 믿어집니다.

However, this is a very diverse group of animals. 하지만, 개과에는 아주 다양한 그룹의 동물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foxes that are adapted to living in the arctic, and others that live in the desert. 극지방에서 살도록 적응한 여우들이 있는가 하면, 사막에서 사는 것들도 있습니다.

There is incredible variety seen in modern domestic dog breeds. 현대의 개의 종류를 보면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합니다.

Where did all this variety come from? 이 모든 다양성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And how could it arise so quickly given that the Flood occurred around 4,350 years ago? 그리고 홍수가 4,350년 전에 일어난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일어난 것일까요?

The answer to this puzzle is probably quite complex. 이 수수께끼의 대답은 아마 아주 복잡할 것입니다.

However, a close examination reveals that genetic changes have also arisen in this time. 하지만, 면밀한 조사들을 보면 유전적 변화들이 이 때 함께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됩니다.

Many of these changes do not appear accidental and do not directly cause disease. 이 변화들 중의 많은 것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직접적으로 질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For this reason, some creationists have proposed that God “designed animals to be able to undergo genetic mutations which would enable them to adapt to a wide range of environmental challenges while minimizing risk.” 이 이유 때문에, 어떤 창조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동물들이 위험을 최소화 하면서 광범위한 환경적 도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전적 변이를 겪을 수 있도록 동물을 설계하셨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It appears that God has placed some incredible programming into the genomes of the animals He created, and VIRUSES MAY PLAY SOME ROLE IN THIS.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동물의 게놈 안에 엄청난 프로그램을 넣어놓으셨고, 바이러스는 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Please take a look at the slide. 슬라이드를 보아 주십시오.

Here we can see the difference between horizontal gene transfer and vertical gene transfer. 여기서 우리는 수평적 유전자 이동과 수직적 유전자 이동 간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Horizontal gene flow/transfer means Genes picked up from somewhere in the environment rather than inherited from parents. 수평적 유전자 흐름/이동은 유전자가 부모로부터 전해졌다고 보다는 환경 안의 어느 곳에서 취해졌다는 의미입니다.

One creationist proposed that horizontal gene flow may help to explain rapid adaptation and the interesting pattern of DNA in animals. 한 창조주의자는 수평적 유전자 흐름이 빠른 환경적응과 동물 안에 있는 디엔에이의 흥미로운 형태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In fact, the author lists 13 different biological phenomena that might be explained by horizontal gene flow. (T. Wood, “The Aging Process: Rapid Post-Flood Intrabaraminic Diversification Caused by Altruistic Genetic Elements (AGES),” *Origins* 54 (2002).) 사실, 그 저자는 수평적 유전자 이동으로 설명될 수도 있는 13가지의 생물학적 현상을 그의 책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Since viruses carry genetic material (DNA or RNA), they are the most logical agents to suspect in transferring genes. 바이러스가 유전 물질(디엔에이 혹은 알엔에이) 나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가장 의심되는 유전자를 옮기는 매개체입니다.

While horizontal gene transfer would not change the identity of an animal (i.e., it would still belong to the same kind), 수평적 유전자 이동이 동물의 동일성을 바꾸지 않는 반면, (즉, 여전히 같은 종에 속하게 됩니다.)

it could rapidly provide a source of genetic variability that allows for rapid adaptation. 그것은 빠른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전적 다양성의 원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If this is the case, then viruses were created “GOOD” as in Genesis 1. 만일 이것이 맞다면, 바이러스는 창세기 1장에서 본 것처럼 “ 좋게 ” 창조된 것입니다.

### 3 How did these new pestilent viruses come forth? 이 새로운 역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은 어떻게 나타난 것인가?

As I said just before, SARS, swine Flu, MERS, COVID-19, and AIDS are major pestilences that have been threatening humans these days.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비드-19 그리고 에이즈는 오늘 날 인간을 위협하고 있는 주요 역병입니다.

So the second question we have to consider is “How did these new pestilent viruses come forth?” 그래서 생각해 보아야 할 둘째 질문은 “이 새로운 역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입니다.

In order to answer this question, we have to think about what these five pestilences have in common.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다섯가지 역병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Let me explain briefly the causative viruses of these pestilences. 이 역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SARS coronavirus (SARS-CoV) is thought to be an animal virus from an as-yet-uncertain animal reservoir, perhaps bats, that spread to other animals like civet cats. 사스 코로나바이러스는 보유숙주가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아마도 박쥐에서 나와서 사향 고양이와 같은 다른 동물로 옮겨진 동물의 바이러스로 생각됩니다.
2. Swine Flu (pandemic influenza A/H1N1 2009) virus originated from animal (pig) influenza viruses and is unrelated to the human seasonal H1N1 viruses. 신종플루(2009년 A/H1N1 유행성인플루엔자)는 돼지 인플루엔자에서 유래된 것으로 인간의 계절성 H1N1 바이러스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3. Regarding MERS coronavirus (MERS-CoV), dromedary 單峯 camels (Camelus dromedaries, dromedaries) were identified as the natural reservoir.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는, 단봉낙타가 보유숙주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4. The COVID-19 virus is a close relative of other coronavirus found circulating in horseshoe bat populations. 코비드-19 바이러스는 관박쥐에서 돌아다니는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5. Regarding HIV, a type of chimpanzee in West Africa was identified as the source of HIV infection in humans. 에이즈는, 서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침팬지의 일종이 인간의 에이치 아이 브이 감염의 원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s such, all these viruses have come from another species such as bats, cats, pigs, camels, chimpanzees, and so on. 이처럼, 이 모든 바이러스들은 박쥐, 고양이, 돼지, 낙타, 침팬지 등의 다른 종으로부터 왔습니다.

Although there have been no definite proofs that these viruses were genetically engineered by scientists, 비록 이러한 바이러스들이 과학자들에 의해 유전적으로 조작되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I think that humans are responsible for their emergence in one way or another. 인간이 이런 저런 방법으로 그것들의 출현에 관계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Anyhow it is true that viruses to cross the species barrier are the causative agents of these five pestilences. 어쨌거나 종간 장벽을 넘어선 바이러스들이 이 다섯가지 역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If so, what does the Bible say about the crossing the species barrier? 그렇다면, 성경은 종간 장벽을 넘는 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Let's read Genesis 1:12, 21 & 25. 창세기 1:12, 21 & 25절을 읽겠습니다.

『Genesis 1:12』<sup>12</sup> And the earth brought forth grass, and herb yielding seed after his kind, and the tree yielding fruit, whose seed was in itself, after his kind: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창세기 1:12』<sup>12</sup> 땅이 풀과 자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나무를 내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Genesis 1:21』<sup>21</sup> And God created great whales, and every living creature that moveth, which the waters brought forth abundantly, after their kind, and every winged fowl after his kind: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창세기 1:21』<sup>21</sup>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이 풍성히 낸, 움직이는 모든 살아 있는 창조물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Genesis 1:25』<sup>25</sup> And God made the beast of the earth after his kind, and cattle after their kind, and every thing that creepeth upon the earth after his kind: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창세기 1:25』<sup>25</sup>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가축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그것의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As such, God made all living things after their kind, and He saw that it was good.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들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만드셨고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In other words, God intended that every species should have its own identity.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종들은 각각 자신의 독자성을 갖도록 의도하셨습니다.

However, humans don't want to follow God's good intention.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I think that these pestilences have resulted from disobedience of God's Word. 이런 역병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 귀결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So we should listen to God's warning of crossing the species barrier as written in Deuteronomy 22:9-11.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22:9-11절에 쓰여진 종간 장벽을 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Deuteronomy 22:9-11』<sup>9</sup> *Thou shalt not sow thy vineyard with divers seeds: lest the fruit of thy seed which thou hast sown, and the fruit of thy vineyard, be defiled.* <sup>10</sup> *Thou shalt not plow with an ox and an ass together.* <sup>11</sup> *Thou shalt not wear a garment of divers sorts, [as] of woollen and linen together.*

『신명기 22:9-11』<sup>9</sup> ¶ 너는 네 포도원에 여러 가지 씨를 뿌리지 말지니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네 씨의 열매와 네 포도원의 열매가 더러워질까 염려하노라. <sup>10</sup> ¶ 너는 소와 나귀를 함께 써서 밭을 갈지 말지니라. <sup>11</sup> ¶ 너는 양털과 아마로 섞어 짠 것같이 여러 가지를 섞어 짠 옷을 입지 말지니라.

#### 4 Why did God allow pestilences? 왜 하나님께서는 역병들을 허락하셨는가?

The third question we have to consider is “Why did God allow pestilences?” 생각해 보아야 할 셋째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는 역병들을 허락하셨는가?”입니다.

In order to answer this question, we'd better go to the verse where the word ‘pestilence’ occurs for the first time in the Bible.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역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맨 처음 나오는 구절로 가 보는 것이 좋습니다.

By the way, one of the principles of interpretation of the Bible (Bible hermeneutics) is “the law of first mention,” 그런데, 성경해석의 원칙 중에 “최초 언급의 법칙”이 있습니다.

which is defined this way: “The first time a word occurs in the Scriptures gives the key to understand its meaning in every other place.” 그것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성경기록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온 단어가 다른 모든 곳에서 발견되는 그 단어의 뜻을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

Now, let's read Exodus 5:3 where the word ‘pestilence’ appears for the first time. 그럼, 역병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온 출애굽기 5:3절을 읽겠습니다.

『Exodus 5:3』<sup>3</sup> *And they said, The God of the Hebrews hath met with us: let us go, we pray thee, three days' journey into the desert, and sacrifice unto the LORD our God; lest he fall upon us with pestilence, or with the sword.*

『출애굽기 5:3』<sup>3</sup>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은즉 원하건대 우리가 사흘 길쯤 사막으로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게 하소서. 그분께서 역병이나 칼로 우리를 덮치실까 염려하나이다, 하니

Let's continue to read Exodus 9:15. 계속해서 출애굽기 9:15절을 읽겠습니다.

『Exodus 9:15』<sup>15</sup> *For now I will stretch out my hand, that I may smite thee and thy people with pestilence; and thou shalt be cut off from the earth.*

『출애굽기 9:15』<sup>15</sup> 이제 내가 내 손을 내밀어 역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치리니 네가 땅에서 끊어지리라.

Here we see that because Pharaoh refused to set the Israelites free, God decided to punish him with pestilence. 여기 보면,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줄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역병으로 벌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So the word ‘pestilence’ is related to the punishment from God. 그래서 “역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Let's go to 1 Chronicles 21:1, 7, 14. 역대기상 21:1, 7, 14절을 보겠습니다.

『1 Chronicles 21:1』<sup>1</sup> *And Satan stood up against Israel, and provoked David to number Israel.*

『역대기상 21:1』<sup>1</sup>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일어나 다윗을 선동하여 이스라엘의 수를 세게 하니라.

『1 Chronicles 21:7』<sup>7</sup> *And God was displeased with this thing; therefore he smote Israel.*

『역대기상 21:7』<sup>7</sup>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스라엘을 치시매

『1 Chronicles 21:14』<sup>14</sup> *So the LORD sent pestilence upon Israel: and there fell of Israel seventy thousand men.*

『역대기상 21:14』<sup>14</sup> ¶ 이에 주께서 이스라엘 위에 역병을 보내시니 이스라엘 중에서 칠만 명이 쓰러지니라.

Here we see that God sent pestilence upon Israel because King David committed a sin of pride to number Israel. 여기 보면, 다윗왕이 이스라엘의 수를 세는 교만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역병을 보내셨습니다.

As such, pestilence is usually a sign of God's judgment on a nation or people group that rebel against His Word. 이처럼, 역병은 보통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국가나 단체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벌이라는 신호입니다.

This obviously begs the question. 분명히 이것은 질문을 불러 일으킵니다.

Is there any possibility that COVID-19 is a sign of God's judgment? 코비드-19가 하나님의 벌이라는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까?

As you know, COVID-19 was first identified in Wuhan, capital of Hubei province in China. 아시다시피, 코비드-19는 중국 후베이성의 수도, 우한에서 처음 나타났습니다.

By the way, China's Communist party is intensifying religious persecution as Christianity's popularity grows. 그런데, 중국공산당은 기독교 인구가 커지면서 종교적 박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And the most persecuted area is known as Wuhan city. 그리고 가장 박해가 심한 곳이 우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Thousands of crosses already have been burned or ripped down from church buildings, increasing numbers of which are being closed and/or demolished 수 천개의 십자가가 이미 불탔거나 교회 건물로부터 철거되었고, 폐쇄되거나 철거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Chinese authorities use dynamite and bulldozers to flatten well-known evangelical megachurch. 중국 당국은 잘 알려진 대형 선교교회를 다이내마이트와 불도저를 이용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Inside the church buildings that remain open for now, crosses are being taken down or flanked by portraits of Mao Zedong and Xi Jinping, 지금 열려있는 교회 건물 안에는, 십자가는 내려지고, 모택동과 시진핑의 초상화가 걸려있습니다.

and singing songs that praise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s being required before singing hymns. 그리고 찬송가를 부르기 전에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Thousands of pastors already have been arrested, beaten, tortured, sentenced to years in prison, or simply disappearing (see Wang Yi). 이미 수 천명의 목사들이 체포되어, 구타당하고, 고문을 당하며, 수 년간 투옥되거나 그냥 없어지고 있습니다. (왕이를 보십시오.)

The Chinese government is now using mass surveillance technolog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to surveil all of its citizens. 중국 정부는 지금 대중 감시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사용하여 모든 시민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CCTV cameras are being forcibly installed inside church buildings, including over their doors, offering boxes, and Bible-selling counters. 폐쇄회로 카메라가 출입문, 헌금함, 성경 판매대를 포함하여 건물 내부에 설치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The Chinese government is now tracking virtually every social movement and behavior of all of its citizens, including who attends church, buys Bibles, and where those Bibles are taken. 중국 정부는 지금 누가 교회를 참석하였고, 성경을 구입하였는지, 그리고 그 성경을 어디에서 가져왔는지를 포함하여 모든 시민들의 사회운동과 행위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So I think that COVID-19 could be a sign of God's judgment as Psalmist says in Psalm 78:50, 그래서 저는 코비드-19가 시편 78:50절에서 시편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신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Psalms 78:50』<sup>50</sup> *He made a way to his anger; he spared not their soul from death, but gave their life over to the pestilence;*

『시편 78:50』<sup>50</sup> 자신의 분노에 이르는 길을 닦으사 그들의 혼을 아끼지 아니하심으로 죽음을 면치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역병에 넘겨주셨으며

## 5 Can pestilences be one of the signs of end times? 역병이 말세의 신호 중의 하나일 수 있는가?

The fourth question we have to consider is “Can pestilences be one of the signs of end times?” 생각해 보아야 할 넷째 질문은 “역병이 말세의 신호 중의 하나일 수 있는가?”입니다.

Some might say to me like this: 어떤 분은 제게 이렇게 말할 지 모릅니다.

“Preacher, we know that so many pestilences have been written in human history since thousands of years ago. 설교자님, 인간 역사에는 수천 년 전부터 인간 역사에 기록된 수 많은 역병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And pestilences these days will subside sooner or later as before. 그리고 요즘 생긴 역병들도 과거처럼 조만간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So pestilences could not be a sign of the end times. 그래서 역병은 말세의 신호가 될 수 없습니다.”

I understand this opinion, but I don't agree with it, 저는 이 의견을 이해하지만 동의하지 않습니다.

because these new pestilences such as SARS, swine Flu, MERS, COVID-19, and AIDS are different from the other pestilences so far known. 왜냐하면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비드-19, 에이즈와 같은 새로운 역병들은 지금까지 알려진 다른 역병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Let's read today's main verse Matthew 24:7 once again. 오늘의 주 성경구절인 마태복음 24:7절을 다시 한 번 읽어봅시다.

By the way this verse is about the time during the 7 year Tribulation period or just before it. 그런데 이 구절은 칠년대환란 도중 아니면 바로 그 전의 때에 대한 것입니다.

『Matthew 24:7』<sup>7</sup> For nation shall rise against nation, and kingdom against kingdom: and there shall be famines, and pestilences, and earthquakes, in divers places.

『마태복음 24:7』<sup>7</sup>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Here we can see ‘pestilences’ and also ‘in divers places.’ 여기에 “역병”과 “곳곳에”라는 말이 보입니다.

Most pestilences so far occurred in a local area or in one continent at the most. 지금까지 대부분의 역병들은 한 지역이나 기껏해야 한 대륙에서 발생했습니다.

However, new pestilences including COVID-19 appear in divers places, even in the whole world. 하지만, 코비드-19를 포함한 새로운 역병들은 곳곳에서, 심지어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Let's read Daniel 12:4. 다니엘서 12:4절을 읽어봅시다.

『Daniel 12:4』<sup>4</sup> But thou, O Daniel, shut up the words, and seal the book, [even] to the time of the end: many shall run to and fro, and knowledge shall be increased.

『다니엘 12:4』<sup>4</sup>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 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음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Here God says that the time of the end is when many shall run to and fro.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달음질하는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Taken together, one of the signs of end times is ‘pestilences in divers places’ due to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s we have seen in cases of COVID-19. 종합해 보면, 마지막 때의 한 신호는 코비드-19의 경우에서 본 것처럼 교통의 발달로 인해 “곳곳에서 발생하는 역병들”입니다.

Now, I want to give you one more biblical evidence that new pestilent viruses could be one of the signs of end times. 이제, 저는 새로운 역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말세의 신호 중의 하나일 수 있다는 성경의 증거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Let's go to Luke 17:26, 28, & 30. 누가복음 17:26, 28 & 30절을 보겠습니다.

『Luke 17:26』<sup>26</sup> And as it was in the days of Noe, so shall it be also in the days of the Son of man.

『누가복음 17:26』<sup>26</sup>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Luke 17:28』<sup>28</sup> Likewise also as it was in the days of Lot; they did eat, they drank, they bought, they sold, they planted, they builded;

『누가복음 17:28』<sup>28</sup>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되

『Luke 17:30』<sup>30</sup> *Even thus shall it be in the day when the Son of man is revealed.*

『누가복음 17:30』<sup>30</sup>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Here the Lord Jesus says that the time of His return is like in the days of Noah and also in the days of Lot. 주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재림 때가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We know that the Flood of Noah occurred because the barrier between angels and humans was destroyed as written in Genesis 6:2. 노아의 홍수는 창세기 6:2절에 씌여진 것과 같이 천사와 인간 사이의 장벽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Genesis 6:2』<sup>2</sup> *That the sons of God saw the daughters of men that they were fair; and they took them wives of all which they chose.*

『창세기 6:2』<sup>2</sup>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And also we know that God overthrew Sodom and Gomorrah because the barrier between male and female was destroyed as written in Jude 1:7. 그리고 또한 유다서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장벽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리셨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Jude 1:7』<sup>7</sup> *Even as Sodom and Gomorrah, and the cities about them in like manner, giving themselves over to fornication, and going after strange flesh, are set forth for an example, suffering the vengeance of eternal fire.*

『유다서 1:7』<sup>7</sup>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Taken together, Jesus' return is associated with the time of crossing the barrier between creatures.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재림은 창조물 사이의 장벽을 넘는 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As I mentioned earlier, the causative agents of pestilences such as SARS, swine Flu, MERS, COVID-19, and AIDS are viruses to cross the species barrier.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비드-19, 에이즈와 같은 역병을 일으키는 매개체는 종간 장벽을 넘는 바이러스입니다.

So the emergence of these new pestilences, can be one of the signs of end times.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역병들의 등장은 말세의 한 가지 신호일 수 있습니다.

## 6 What should we do in the age of pestilences? 우리는 역병들의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The fifth and the last question we have to consider is “What should we do in the age of pestilences?” 생각해 보아야 할 다섯째, 마지막 질문은 “우리는 역병들의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First of all, as a medical doctor, I want to tell you three basic protective measures against the new coronavirus. 무엇보다 먼저, 의학박사로서 저는 여러분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막는 세 가지 기본적인 방책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Wash your hands frequently. 손을 자주 씻으십시오.
2. Take megadose vitamin C. 비타민씨를 대량 복용하십시오.
3. If you have fever, cough and difficulty breathing, seek medical care early. 열, 기침, 호흡곤란이 있다면, 조기에 병원치료를 받으십시오.

Now, as a Preacher, I want to ask you a couple of things. 이제 설교자로서 저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The first thing we have to do is to pray!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Pray for those who are suffering from COVID-19. 코비드-19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Pray especially for Christians and their families in the central Chinese city of Wuhan. 특별히 중국 중부 도시 우한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Many Christians in Wuhan city have been catching this novel coronavirus. 우한 시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리고 있습니다.



Some of them already went to Heaven. 그들 중 일부는 이미 하늘에 갔습니다.

For an example, the 34-year-old doctor, Li Wenliang who was among the first to warn about the coronavirus outbreak in late December, died 7th of this month. 예를 들어, 작년 12월 코로나바이러스의 발병에 대해 처음으로 경고했던 34세 의사, 리원량은 이 달 7일에 죽었습니다.

They need our prayers. 그들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Let's look at Romans 12:15. 로마서 12:15을 보겠습니다.

『Romans 12:15』<sup>15</sup> *Rejoice with them that do rejoice, and weep with them that weep.*

『로마서 12:15』<sup>15</sup>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올라.

So we should “weep with them that weep” in our prayer. 우리는 우리의 기도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Let's look at 2 Corinthians 1:4. 고린도후서 1:4절을 보겠습니다.

『2 Corinthians 1:4』<sup>4</sup> *Who comforteth us in all our tribulation, that we may be able to comfort them which are in any trouble, by the comfort wherewith we ourselves are comforted of God.*

『고린도후서 1:4』<sup>4</sup>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 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So in our prayer, we should “comfort them which are in any trouble, by the comfort wherewith we ourselves are comforted of God.” 그래서 우리의 기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 해야 합니다.

The second thing we have to do is to spread the Gospel.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It is true that lost souls are very worried about the possibility that they might pass away due to COVID-19. 잃어버린 영혼들이 코비드-19로 인해 사망할 지 모르는 가능성에 대해 아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They need the Lord! 그들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You see, Christians in Wuhan, China are braving the coronavirus to preach and distribute masks in the city. 중국 우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코로나바이러스도 굴하지 않고 용감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도시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CBN (The Christian Broadcasting Network) reports that Christians are taking to the streets to distribute masks and Gospel passages. 씨 비 엔(기독교방송네트워크)은 기독교인들이 거리에 나가 마스크와 전도지를 배포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Not only in Wuhan, China but also in Incheon, Korea, lost souls need the Gospel. 중국 우한에서 뿐 아니라, 한국 인천에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The situation in which they can think about death must be a spiritual blessing to them. 그들이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상황이 그들에게 영적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So we have to do our best to let them hear Jesus' saying in Matthew 16:26,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6:26 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Matthew 16:26』<sup>26</sup> *For what is a man profited, if he shall gain the whole world, and lose his own soul? or what shall a man give in exchange for his soul?*

『마태복음 16:26』<sup>26</sup>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And also we should not hesitate to share with them the Gospel message like John 3:16, 그리고 또 요한복음 3:1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복음의 말씀을 그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John 3:16』<sup>16</sup>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요한복음 3:16』<sup>16</sup> ¶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 7 Conclusion 결론

Now I would like to conclude by summarizing. 이제 요약을 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God created viruses good that they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maintaining life on earth. 하나님께서는 바이러스가 지구 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그것들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2. The causative agents of new pestilences including COVID-19, are viruses to cross the species barrier. 코비드-19를 포함한 새로운 역병들을 일으키는 매개체는 종간 장벽을 넘는 바이러스들입니다.
3. The word 'pestilence' is related to the punishment from God. So COVID-19 could be a sign of God's judgment. "역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비드-19는 하나님의 심판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4. The emergence of pestilences such as COVID-19, can be one of the signs of end times. 코비드-19와 같은 역병의 출현은 마지막 때의 신호 중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5. We should pray for those who are suffering from COVID-19, and also spread the Gospel to lost souls. 우리는 코비드-19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또한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I will finish by reading today's main verses. 오늘의 주 성경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Matthew 24:7』<sup>7</sup> *For nation shall rise against nation, and kingdom against kingdom: and there shall be famines, and pestilences, and earthquakes, in divers places.*

『마태복음 24:7』<sup>7</sup>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Matthew 24:33』<sup>33</sup> *So likewise ye, when ye shall see all these things, know that it is near, even at the doors.*

『마태복음 24:33』<sup>33</sup>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볼 때에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Let's pray: Heavenly Father,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us your perfect Word of Truth to worship you in spirit and in truth. And also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Promise that Jesus will come again very soon.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us here would continue to look forward to the blessed Hope and to live a life acceptable unto you in the age of pestilences. In Jesus' name I pray. Amen.